

# “주택시장 안정 위해 임대보증 유동성 지원·감정평가 개선”

## 최인호 HUG 사장, 광주·전남 첫 방문 애로 청취 자산동 지주택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장 점검도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중동발 위기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최인호 HUG 사장과 첫 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간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환경 경색, 중동지역 분쟁 등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은 주택건설업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임대보증금보증 발급 실적이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임대보증금보증 중 35.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을 비롯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 부채 비율 적용개선, 기업형임대사업자 주택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최인호 HUG 사장과 첫 회담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기금 지원 제시행은 건의했다. 또 허그 보증료를 인하, 임대보증금 보증료 분할납부 허용, 임대건설자금 기금대출보증제도

금관리 개선, 지방미분양 환매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HUG는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보 증료를 한시적 인하 △미분양 안심환매 제 도 개선 등 주택업계 지원을 위한 제도 보 완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사장은 동구 자산 동 지역주택조합 ‘미분양 안심환매’ 신 청 사업장을 점검하며 현장 상황을 확 인했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택 건설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HUG정책에 적 극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 20일 중동상황 대응

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주택 건설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 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별 기한 연장 등 대 책을 발표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 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27 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하고 PF대출보증에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 보증 보증료 할인을 최대 60%까지 상 향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외되는 공사비 등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 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 증’ 보증료 역시 한시적으로 30% 할인을 추진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3일 지역 중소기업 대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광은리더스클럽 정기총회·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 광은리더스클럽 정기총회...“동반성장·네트워크 강화”

### 지역현안 참여 확대 등 올해 사업 확정·특강

광주은행은 23일 지역 중소기업 대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광은리더스 클럽 정기총회·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광은리더스클럽의 올

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원 간 교류 확 대와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을 위 한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지역 현안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초청 강연에 서는 LS증권 연승환 이사가 ‘대변화가 시 작된 대한민국 자산시장’을 주제로 강연 을 진행해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투자 흐 름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광은리더스클럽은 지난 2007년 창립된 지역 대표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현재

2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박철홍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은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광주 은행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고객과 지역을 최 우선 가치로 삼고 든든한 금융 파트너 역할 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 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비은행 호실적에 JB금융 1분기 순이익 1661억 광주은행 611억 8.7%↓...“특별퇴직·유가증권 평가손 영향”

코스피 상승자 JB금융지주는 자회사 광주은행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81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 시했다.

매출은 447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611억원으로 8.7% 줄었다.

JB금융지주는 “특별 퇴직 실시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와 유가증권 평가손 등의 영향으로 은행계열사의 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지주 전체로는 당기순이익 1661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동기 1628억원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자기 자본이익률(ROE) 11.2% 및 총자산이익 륜(ROA) 0.94%를 기록하며 업권 최상 위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주자본비용(잠정)은 전년 말 대비 0.03%p 개선된 12.61%로 안정적 자본적

정성을 유지했다.

특히 그룹 전체의 이자이익이 전년 동 기 대비 8.5% 증가하는 등 핵심 수익원이 성장세를 보였다.

JB우리카페팀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727억원의 실적을 달성하 며 그룹의 견고한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은행계열사 실적은 뒷걸음질 쳤다. 전북은행도 당기순이익 399억원으로 전 년 동기 515억원 대비 22.5% 감소했다.

김기홍 지주 회장은 이날 실적 권면편 지소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틈새시장 공략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해 연건 순의 가이던스를 달성하고 주주환원을 50% 도 실시할 것”이라며 “JB금융그룹은 AX(인공지능 전환)에 있어 ‘퍼스트 무 버’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그룹 전반의 프로그래밍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에 있 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26일까지 광주서 전남 명품한우 대축제 최대 51% 할인...시식행사·소비자 참여 이벤트

전남도는 24일부터 3일간 광주축협 하 나로마트에서 제13회 전남명품한우대축 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명품한우대축제는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소비자는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 한우고기를 정산가격보다 20%에서 최대 51%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 으며, 다양한 할인행사와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동시대 장기화 등 국제유가 지속 상승, 국제 정세 불안, 소

비 부진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고, 전 남 고품질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 추진된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한우 직거래 대매만 만 아니라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행 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한우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축산 농가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한우산업 안정과 소비 확대 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흔들리는 전남 양식업 ‘왕좌’, 제주가 넘본다

전남이 국내 어류양식 생산량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그 격차가 사실상 허물어졌다. 최근 국가데이터가 발 표한 ‘2025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의 생산량은 2만7325t으로, 제주(2만7227t)와의 차 이가 불과 98t에 그쳤다. 1년 전만 해도 2500t이 넘는 격 차가 한 해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숫자 뒤에 전남 양식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두 지역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전남 생산량은 전년 (2만7502t) 대비 0.6% 줄었고, 경남도 5.1% 감소했 다. 반면 제주는 8.9%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 어갔다. 생산금액 증가율에서도 제주는 18.3%를 기 록해 전남(8.3%), 경남(7.0%)을 크게 앞섰다.

격차가 이토록 빠르게 좁혀진 핵심 배경은 양식 방 식의 차이다. 제주는 265개 경영체 중 264개가 육상수 조식으로 운영된다. 바다 온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 는 구조다. 반면 전남은 해상가두리 양식이 중심으로, 고수온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25년 고수온 특보 발령일은 8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2021년 47일이었던 것이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전남 남해안은 고수온의 영향을 가장 먼 저, 가장 강하게 받는 해역이다.

그 결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전남에서 먹이를 준 양은 15만7183t으로 전년(17만8015t) 대비 1만1000t 이상 감소했는데, 어류 절식 조치 등 고수온 대응 과정에서 사육 관리 자체가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국 시도 중 고수온으로 인한 먹이 감소량이 경남 (-1만4000t) 다음으로 전남(-1만1000t)이 두 번째 로 컸다는 점은 전남 양식업이 고수온 리스크에 얼마

### 생산량 불과 98t 차이 1위 유지 고수온·해상가두리 의존이 발목



나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우럭) 생산량이 5400t에서 4100t으로 1300t 줄었는데, 이는 전국 조 피볼락 감소량(2648t)의 절반에 해당한다.

경영체 수 감소도 전남에 집중됐다. 전남의 어류양 식 경영체 수는 490개에서 463개로 27개(5.5%) 줄었 다. 전국 전체 감소분(-27개)이 사실상 전남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다른 지역이 현상 유지 혹은 소폭 증가 한 것과 대조적이다.

감소의 대부분은 해상가두리 양식 경영체에서 나왔 다. 전남의 해상가두리 경영체는 294개에서 268개로 26개 줄었다. 소규모 해상가두리 양식장들이 고수온 피해와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육상수조식과 축제식 경영체 수는 소폭이나마 유지되거나 늘었다.

종사자 수도 1734명에서 1675명으로 59명

(3.4%) 감소했다. 특히 경영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금 없이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43명에서 258 명으로 85명이나 줄어, 전통적인 가족 경영 양식장의 퇴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위가같은 현장에서 먼저 감지됐다. 전남 어수시는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아 열대성 어류 ‘벤자리’ 시험양식을 본격 추진하고 있 다. 벤자리는 28-32도의 수온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에 가능한 어종이다. 어수시는 지난해 10월 거문도 해역 가두리에 1만마리를 시험 입식했고,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먹이 섭취와 성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는 고효율 ‘AI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 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 대응 과 스마트 양식 전환을 동시에 꾀하는 방향이다.

이번 통계에서 전남의 희망 신호도 있다. 입식 마릿 수가 전년 대비 23.9% 급증했고, 육상수조식 양식 면 적도 4만㎡가량 늘었다. 어업인들 스스로 변화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구조 전환에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 울머를 고수온 시즌이 돌아온다. 기상청은 올해도 해수면 온 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8t 차이 로 지켜낸 1위는 다음 통계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전남 어류양식의 위기는 단순한 생산량 숫자의 문 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다져온 해상가두리 양식 생태 계가 기후변화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근본적인 체질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는 그 변화의 속도가 예상 보다 빠르다고 말하고 있다.

황해운 기자 nab@gjdream.com

## 농협 전남본부, 상큼에·오매향 라이브커머스 곡성농협 블루베리·완도농협 바나나 최대 41% 할인 판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4층 라운지 에서 전남 광역농산물 브랜드 ‘상큼에’ 블 루베리와 ‘오매향’ 바나나를 최대 41% 할 인 가격에 선보이는 라이브커머스를 진 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송에는 김완술 곡성농협 조합장 이 직접 출연해 곡성의 청정 자연에서 재 배된 GAP 인증 블루베리를 소개했다. 곡 성농협 블루베리는 공동선별부터 상품

화,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 추어 균일한 품질과 뛰어난 맛을 자랑하 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선보인 완도농협의 유기농 바나나도 눈길을 끌었다. 풍부한 일 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와 향이 뛰 어 나고, 쫄쫄 씹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수확 직후 곧바로 출하돼 신선도가 높 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